

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

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



전북대학교 의과대학 · 의학전문대학원
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

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
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

교육부학장 김 인 희
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유 효 현



전북대학교 의과대학 · 의학전문대학원
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• 교육과정평가 설문지 개발 및 조사 개요 | 1 |
| • 통합강의 교육과정평가 결과 | 3 |
| •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평가 결과 | 9 |
| •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평가 결과 | 15 |
| •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| 19 |
| • 심화선택의학 교육과정평가 결과 | 23 |
| • 임상수기 교육과정평가 결과 | 27 |
| • 증례바탕학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| 31 |
| • 임상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 | 33 |
| • [부록] | |
| [부록 1] 교육과정개편의 원칙 동의 정도(교수) | 37 |
| [부록 2]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(학생) | 38 |

교육과정평가 설문 조사 개요

I.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개요

1. 설문조사 개요

가. 설문조사 목적

- 의과대학 · 의학전문대학원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활용한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

나. 설문조사 기간

- 교수 : 2019. 11. 15(금) / 2019. 11. 22(금) 교수워크숍
2019. 12. 02(월) – 2019. 12. 06(금) 추가 설문
- 학생 : 2019. 11. 21 – 2019. 12. 5

다. 설문 및 참여자

1) 교수

① 소속 교실

| | 인원(명) | 퍼센트(%) |
|-------|-------|--------|
| 기초교실 | 27명 | 20.6% |
| 내과계 | 43명 | 32.8% |
| 외과계 | 40명 | 30.5% |
| 지원계 | 20명 | 15.3% |
| 기타 | 1명 | 0.8% |
| Total | 131명 | 100.0% |

② 직책

| | 인원(명) | 퍼센트(%) |
|------|-------|--------|
| 정교수 | 84명 | 64.1% |
| 부교수 | 15명 | 11.5% |
| 조교수 | 17명 | 13.0% |
| 기금교수 | 15명 | 11.5% |
| 합계 | 131명 | 100.0% |

③ 2006년부터 현재까지 참여하셨던 모든 교육과정

| 교육과정 | 인원(명) |
|---------------|-------|
| ① 통합강의 | 109명 |
| ② PBL(문제바탕학습) | 125명 |
| ③ 심화선택의학 | 23명 |
| ④ 임상의학입문 | 55명 |
| ⑤ 환자의사사회 | 9명 |
| ⑥ 임상수기 | 51명 |
| ⑦ CBL(증례바탕학습) | 29명 |
| ⑧ 임상실습 | 88명 |

2) 학생

| | 1학년 | 2학년 | 3학년 | 4학년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참여자수 | 149/149 | 141/143 | 127/131 | 113/141 |
| 응답률 | 100% | 98.6% | 96.9% | 80.1% |
| 설문기간 | 2019.12.05 | 2019.11.21 | 2019.11.29 | 2019.11.29 |

통합강의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| 통합강의 교육내용은 기초-기초(1학년), 기초-임상·임상-임상(2학년)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21명 (19.1%) | 65명 (59.1%) | 23명 (20.9%) | 1명 (0.9%) |
| 2 | 교수님의 강의의 앞과 뒤에 어떤 교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| 14명 (12.7%) | 59명 (53.6%) | 31명 (28.2%) | 6명 (5.5%) |
| 3 | 각 통합강의에 배정된 총 강의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3명 (11.8%) | 75명 (68.2%) | 20명 (18.2%) | 2명 (1.8%) |
| 4 | 통합강의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2명 (10.9%) | 71명 (64.5%) | 25명 (22.7%) | 2명 (1.8%) |
| 5 |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? | 50명 (45.9%) | 54명 (49.5%) | 5명 (4.6%) | - |
| 6 |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? | 33명 (30.0%) | 62명 (56.4%) | 13명 (11.8%) | 2명 (1.8%) |
| 7 |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21명 (19.1%) | 72명 (65.5%) | 17명 (15.5%) | - |
| 8 |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? | 15명 (13.6%) | 45명 (40.9%) | 38명 (34.5%) | 12명 (10.9%) |
| 9 |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11명 (10.0%) | 55명 (50.0%) | 39명 (35.5%) | 5명 (4.5%) |
| 10 |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10명 (9.1%) | 54명 (49.1%) | 41명 (37.3%) | 5명 (4.5%) |
| 11 | 참여교수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6명 (14.7%) | 79명 (72.5%) | 13명 (11.9%) | 1명 (0.9%) |
| 12 | <p>※ 기타 통합강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강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.', '의대교육은 기본진료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야' ○ 통합강의 책임교수 워크숍(매년) - 교육과정 개선 논의, 통합강의 참여교수 회의 최소 2회 이상(매년) - 교육과정 준비 - 교육과정 종료 후 피드백 개선을 위한 논의 ○ 학회기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의 경우 매번 수업 시간 조정 때문에 힘듭니다. ○ 시대에 역행한다고 그렇지만 임상 과목별 수업이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. 통합강의는 강의 주체가 없어 교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○ 통합강의 내용이 분리되어 강의를 됴므로 전체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학생들이 학과에 대해 나무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.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
| 전체 통합강의과목의 편성과 진행 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. | 1 | 31명 | 20.81% | 91명 | 61.07% | 22명 | 14.77% | 5명 | 3.35% |
| | 2 | 29명 | 20.57% | 94명 | 66.67% | 14명 | 9.93% | 3명 | 2.13% |
| | 3 | 23명 | 18.11% | 76명 | 59.84% | 18명 | 14.17% | 10명 | 7.88% |
| | 4 | 24명 | 21.24% | 68명 | 60.18% | 18명 | 15.93% | 3명 | 2.65% |
| 통합강의 교육내용은 기초-기초(1학년), 기초-임상(2학년),임상-임상(3,4학년)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. | 1 | 44명 | 29.53% | 90명 | 60.40% | 12명 | 8.05% | 2명 | 1.34% |
| | 2 | 33명 | 23.40% | 97명 | 68.80% | 9명 | 6.38% | 2명 | 1.42% |
| | 3 | 21명 | 16.53% | 82명 | 64.57% | 15명 | 11.81% | 9명 | 7.09% |
| | 4 | 30명 | 26.55% | 61명 | 53.98% | 17명 | 15.04% | 5명 | 4.42% |
| 교과목 내에서 매시간의 수업 내용은 전후 수업내용과 잘 연결되었다. | 1 | 31명 | 20.81% | 74명 | 49.66% | 36명 | 24.16% | 8명 | 5.37% |
| | 2 | 27명 | 19.15% | 78명 | 55.32% | 29명 | 20.57% | 6명 | 4.26% |
| | 3 | 21명 | 16.54% | 71명 | 55.90% | 24명 | 18.90% | 11명 | 8.66% |
| | 4 | 23명 | 20.35% | 66명 | 58.40% | 20명 | 17.70% | 4명 | 3.54% |
|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. | 1 | 45명 | 30.20% | 86명 | 57.72% | 14명 | 9.40% | 4명 | 2.68% |
| | 2 | 26명 | 18.44% | 92명 | 65.25% | 19명 | 13.48% | 3명 | 2.13% |
| | 3 | 21명 | 16.54% | 78명 | 61.42% | 18명 | 14.17% | 10명 | 7.87% |
| | 4 | 25명 | 22.12% | 73명 | 64.60% | 13명 | 11.50% | 2명 | 1.77% |
|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. | 1 | 29명 | 19.46% | 69명 | 46.31% | 39명 | 26.17% | 12명 | 8.05% |
| | 2 | 21명 | 14.89% | 58명 | 41.13% | 48명 | 34.04% | 13명 | 9.22% |
| | 3 | 14명 | 11.02% | 71명 | 55.90% | 33명 | 25.98% | 9명 | 7.09% |
| | 4 | 25명 | 22.12% | 65명 | 57.52% | 18명 | 15.93% | 5명 | 4.42% |
| 강의록은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| 1 | 40명 | 26.85% | 82명 | 55.03% | 24명 | 16.10% | 3명 | 2.01% |
| | 2 | 31명 | 21.99% | 80명 | 56.74% | 25명 | 17.73% | 4명 | 2.84% |
| | 3 | 27명 | 21.26% | 67명 | 52.76% | 22명 | 17.32% | 11명 | 8.66% |
| | 4 | 21명 | 18.58% | 74명 | 65.49% | 12명 | 10.62% | 5명 | 4.42% |
|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. | 1 | 45명 | 30.20% | 89명 | 59.73% | 12명 | 8.05% | 3명 | 2.01% |
| | 2 | 36명 | 25.53% | 89명 | 63.12% | 12명 | 8.51% | 3명 | 2.13% |
| | 3 | 18명 | 14.17% | 80명 | 62.99% | 18명 | 14.17% | 11명 | 8.66% |
| | 4 | 29명 | 25.66% | 67명 | 59.29% | 13명 | 11.50% | 4명 | 3.54% |
|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. | 1 | 28명 | 18.79% | 63명 | 42.28% | 35명 | 23.49% | 23명 | 15.44% |
| | 2 | 23명 | 16.31% | 62명 | 43.97% | 36명 | 25.53% | 19명 | 13.48% |
| | 3 | 14명 | 11.02% | 52명 | 40.94% | 35명 | 27.56% | 25명 | 19.69% |
| | 4 | 19명 | 16.81% | 46명 | 40.71% | 24명 | 21.34% | 22명 | 19.47% |

※ 기타 통합강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.

[1학년]

※시험

- 특히 해부학 교실의 경우 시험 성적을 알려주시지 않거나 문제 확인이 불가하여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.
- 만족스럽습니다. 후배들에게도 시험에 대한 피드백, 답지 제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(종양학). 하지만 일부 통합강의에서는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 아쉽습니다(감염학, 인체반응과 병태생리)
- 답지공개. 성적공개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단지 일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답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머리에 남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지식으로 앞으로 의사가 됩니다. 물론 참 공부를 하면 고칠 수 있겠다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
-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주는 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 제대로 이해를 못한 잘못된 지식이 고쳐지지 않습니다.
- 수업 시수에 따른 시험 문항수를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하셨으면 합니다. 시험마다 문제수가 다르고, 몇몇 시험은 한 문제에 해당되는 수업시수가 너무 커서 같은 개수의 문제를 틀리더라도 성적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.
- 정답 공개 및 시험지 확인이 모든 과목에서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- 시험 문제 출제 의도와 정답을 알려주세요.
- 시험이 끝나면 성적 뿐 만 아니라 정답지를 공지해 주셔서 자신이 무엇이 틀렸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면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- 시험에 대한 답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험을 봐도 찝찝한 느낌으로 끝이 남. 강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혼란스러웠음
- 시험이 끝난 후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및 해설 부탁드립니다.
- 시험문제가 별로다.
- 시험 후 점수를 알려주면 본인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- 시험 본 후 그 답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 정답 공개해주세요.

※강의

- 교수님 별로 같은 통합강의 주제 안에서 조금 더 기초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 더 심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순서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통합강의 자체를 폐지하고 과목별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1학기 수업 커리큘럼이 완전한 쿼터제(중간, 기말에만 시험)로 전환되던지 아니면 완전한 블럭제로 전환되던지 둘 중 하나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통합강의 내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.
- 1학년 통합강의는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나, 그 와중에 체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무엇보다 왜 어떤 과목을 배워야하는지, 1학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- 대체적으로 기초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나 수업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결이 잘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! 서로 서로 강의 시간 순으로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

- 통합강의인데 교수님마다 강의 내용이랑 설명이 연계가 하나도 안 됨
- 적절한 양과 난이도 고려가 필요해보임
- 수업 전후관계는 사실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
- 가끔 수업 순서가 바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.
- 강의록을 수업시간에 쓰는 것으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.
- 강의록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
- 모든 교수님들께서 강의록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수업 양을 줄여야 합니다.

[2학년]

※시험

- 시험 후 성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몇몇 과목만 시험지를 배부하고 정확한 답과 함께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모든 과목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부의 마무리가 되고, 공부 방법이 되돌아보고,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
- 몇 년간 잘 못 채점되어 왔다는 것이 최근 정답 공개된 과목을 통해 밝혀졌는데, 아직까지도 문제, 정답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.
- 시험 후 제대로 된 해설 강의를 있었으면 더 기억에 오래남고 좋을 것입니다.
- 성적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 후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다.
- 시험 후 답지와 시험지를 배부해주시면 그 과목에서 몰랐던 부분,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.
- 주관식 포함한 성적공개
- 시험 후 피드백 중요
- 시험문제 피드백은 반절 정도 과목에서만 이뤄집니다
- 성적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에 대한 피드백
- 신경학은 왜 시험을 한 번 볼까요..

※강의

- 통합 강의록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.
- 또 수업시간대비 과하게 많은 내용을 강의에 준비해 오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, 교수님들에게 시간당 적정 강의량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수업하시는 피피티가 통합강의록에 없을 때도 많고 다를 때도 많아 불편한 점이 큼니다.
- 강의량은 유지하되 최소한으로 알아야할 것을 교수님들께서 추려서 강조해주신다면 학습효율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.
- 강의록을 제공해 주실 때, 가급적 강의록을 해당 블럭 시작 전에 확정하여 모두 제공해 주시면 수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. 인쇄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경우, 강의록이 새로 바뀌면 수업을 제대로 못 듣게 되며 인쇄물로만 강의록이 제공되는 경우 iPad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경우 작년 강의록을 일부 학생들은 선배를 통해 공유하고 공유 받지 못한 학생은 수업을 공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
- 정부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2,3,4학년 교육을 수업+실습의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(피부과수업 ->피부과실습)
- 적어도 각론 먼저하고 뜬금없이 며칠 뒤에 총론 수업하는 일만 없게 해주십시오.

- 강의록을 제때 제공해주세요
- 병리학은 조직슬라이드 사진을 컬러로 보고 싶은데 인쇄본만 주셔서 보기 불편합니다.
- 가끔 몇몇 과목들은 서론이 강의주간 중간에 끼여있어서 힘들었습니다.
- Ppt 자료가 따로나가는 것이나 강의 자료가 미리 주어지지 않는 수업 시간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.
- 강의록을 수업 전에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.
- 강의록을 수업 전에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강의순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. 교수님들의 일정에 따라 각론을 먼저 배우고 총론을 배우는 일이 있는데 ...
- 일부 강의에서는 강의록이 몇 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. 강의록을 모두 받길 원해요.
- 신경학 통합강의록이 있으면 좋겠다.
- 자료 미리 받기
- 양 좀 줄여주세요 πππ
- 이의제기 feedback 과정이 모든 통합강의에 있었으면

[3학년]

※시험

- 시험 종료 후 답을 알려주시거나 그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을 보고나서 교수님들께서 그 문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내신 것인지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정답 공개와 이의신청에 대한 피드백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시험 후 문제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제때 시험 성적 및 시험기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무엇을 맞추고 틀렸는지 그리고 왜 답이 그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. 본인 지식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시험 후 피드백 제공이 되지 않는 과가 많습니다.
- 시험 본 후에 정답 제공 및 각각 학생들 별 정오표 제공하여 혹시나 맞는 답인데 오답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및 시험 문제 및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해주세요. 피드백이 없다보니깐 제가 가진 지식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.
- 시험 후 피드백을 해줬으면 합니다.
- 시험에 대한 성적 공개
- 빠른 피드백 및 채점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합니다.
- 시험을 국가고시준비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
- 정답 및 피드백 해주세요.
- 성적 공개 및 답 공개를 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※강의

- 통합강의는 시스템적으로 질환을 배울 수 있으나 내과계에 편중되어 있어서 외과계 실습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수업의 주제 배분과 내용 연계가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의록과 실제 통합강의록이 차이가 많아서 학습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. 만일 통일되어서 한 자료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나중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.
- 실습을 돌아보니 각 과에 대해 공부해야할 내용을 확실히 담아낸 과목이 산부인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다른 과목은 시간도, 교육 자료도 부족해서 아쉬웠다.
- 본과1학년 진단학 과목 때 각론적인 내용보다는 기초적인 내용과 병력청취, 신체검진 등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.

- 과목별로 ppt로만 혹은 종이강의록으로만 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.
-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보다는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교수님들 간에 강의내용을 서로 공유, 조율하면 좋겠습니다. 강의록도 제대로 제공해주세요.
- 각 강의끼리 연계가 잘 되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.

※기타

- 굳이 설문조사는 모여서 안 해도 될 것 같다

[4학년]

※시험

- 시험 후 많은 사람이 틀린 문제위주의 해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 후 피드백이 필요하다.
- 시험피드백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이 가장 큰 학습의 기회가 되는데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면 정말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
- 시험 후 성적만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성적을 1년 치로 공개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. 이제 고쳐졌으나 매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전무하였다
- 피드백도 제대로 해주세요.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
-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타 학교처럼 본3부터 기말대신 임중평을 반영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.
- 시험 결과 공유 및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.
- 점수랑 등수 공개 그때그때 해주세요.
- 시험점수를 바로바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.

※강의

- 수업 시 실제로 사용하는 강의안으로 구성된 책을 미리 배포해야한다.
-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임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중앙내과와 피부과, 안과, 이비인후과 같은 주 내과과목이 아닌 과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공부하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- 기초해부과목들 중요한 내용들은 임상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과 접목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! 임상교수님들이 직접 설명해주시면서 이걸이래서 중요하다 알려주시면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해부과목은 그냥 단순암기 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!
- 강의록이 pdf로 미리 제공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- 너무 많은 교수님들이 짧은 시간 동안 들어오셔서 통합강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. 분과별로 배우는 게 실습까지 연계가 잘 되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
- 방대한 양보다는 중요한 항목 위주로 강의 받으면 좋겠습니다.
- 과목별로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임상의학입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인지 아십니까? | 10명 (19.2%) | 36명 (69.2%) | 5명 (9.6%) | 1명 (1.9%) |
| 2 | 임상의학입문 1,2,3,4 과목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2명 (3.8%) | 18명 (34.6%) | 28명 (53.8%) | 4명 (7.7%) |
| 3 | 각 임상의학입문(1,2,3,4 각각) 과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. | 2명 (3.8%) | 21명 (40.4%) | 24명 (46.2%) | 5명 (9.6%) |
| 4 | 임상의학입문 과목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3명 (5.8%) | 29명 (55.8%) | 17명 (32.7%) | 3명 (5.8%) |
| 5 |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? | 19명 (36.5%) | 29명 (55.8%) | 3명 (5.8%) | 1명 (1.9%) |
| 6 |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? | 15명 (28.8%) | 31명 (59.6%) | 3명 (5.8%) | 3명 (5.8%) |
| 7 |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8명 (15.4%) | 36명 (69.2%) | 7명 (13.5%) | 1명 (1.9%) |
| 8 |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? | 6명 (11.5%) | 19명 (36.5%) | 20명 (38.5%) | 7명 (13.5%) |
| 9 |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2명 (3.8%) | 14명 (26.9%) | 29명 (55.8%) | 7명 (13.5%) |
| 10 |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2명 (3.8%) | 20명 (38.5%) | 24명 (46.2%) | 6명 (11.5%) |
| 11 | <p>※ 기타 임상의학입문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문이 각 과목의 introduction으로 이루어져 실제 수업과 간격이 있어 연계되지 않음 ○ 임상학 내용 중 과연 primay physieronm 필요한 내용인지 다시 검토가 필요함 ○ 임상의학 입문 교육과정 개편 - 시설, 강의 내용 조정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전체 임상의학입문 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. | 1 | 36명 | 24.16% | 75명 | 50.34% | 34명 | 22.82% | 4명 | 2.68% |
| | 2 | 26명 | 18.44% | 71명 | 50.35% | 35명 | 24.82% | 7명 | 4.96% |
| | 3 | 22명 | 17.32% | 65명 | 51.18% | 26명 | 20.47% | 14명 | 11.02% |
| | 4 | 31명 | 27.43% | 58명 | 51.33% | 20명 | 17.70% | 3명 | 2.65% |
| 임상의학입문 교육이 실제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었다. | 1 | 41명 | 27.52% | 82명 | 55.03% | 20명 | 13.42% | 4명 | 2.68% |
| | 2 | 28명 | 19.86% | 60명 | 42.55% | 44명 | 31.20% | 7명 | 4.96% |
| | 3 | 22명 | 17.32% | 69명 | 54.33% | 26명 | 20.47% | 10명 | 7.87% |
| | 4 | 27명 | 23.89% | 66명 | 58.40% | 16명 | 14.16% | 4명 | 3.54% |
|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. | 1 | 41명 | 27.52% | 81명 | 54.36% | 23명 | 15.44% | 4명 | 2.68% |
| | 2 | 31명 | 21.99% | 90명 | 63.83% | 15명 | 10.64% | 3명 | 2.13% |
| | 3 | 21명 | 16.54% | 71명 | 55.90% | 24명 | 18.90% | 11명 | 8.66% |
| | 4 | 29명 | 25.66% | 70명 | 61.95% | 11명 | 9.73% | 3명 | 2.65% |
|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. | 1 | 31명 | 20.80% | 60명 | 40.27% | 41명 | 27.52% | 17명 | 11.40% |
| | 2 | 35명 | 24.82% | 88명 | 62.41% | 13명 | 9.22% | 3명 | 2.13% |
| | 3 | 24명 | 18.90% | 71명 | 55.90% | 24명 | 18.90% | 8명 | 6.30% |
| | 4 | 23명 | 20.35% | 76명 | 67.26% | 12명 | 10.62% | 2명 | 1.77% |
|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. | 1 | 52명 | 34.90% | 78명 | 52.35% | 13명 | 8.72% | 6명 | 4.03% |
| | 2 | 37명 | 26.24% | 90명 | 63.83% | 9명 | 6.38% | 3명 | 2.13% |
| | 3 | 25명 | 19.69% | 75명 | 59.05% | 17명 | 13.39% | 10명 | 7.87% |
| | 4 | 26명 | 23.01% | 72명 | 63.72% | 10명 | 8.85% | 5명 | 4.42% |
|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. | 1 | 62명 | 41.61% | 67명 | 44.97% | 12명 | 8.05% | 8명 | 5.37% |
| | 2 | 39명 | 27.66% | 64명 | 45.39% | 26명 | 18.44% | 10명 | 7.09% |
| | 3 | 23명 | 18.11% | 61명 | 48.03% | 23명 | 18.11% | 20명 | 15.75% |
| | 4 | 28명 | 24.78% | 48명 | 42.48% | 22명 | 19.47% | 14명 | 12.39% |

※ 기타 임상의학입문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

[1학년]

※시험

- 시험문제의 오류나 입문에 벗어난 내용을 과도하게 넣은 경우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단기간에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많았고 시험문제는 저희가 배우지 않은 내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.
- 어떤 교수님께서 특정 학생에게만 시험문제 유형을 알려주시는 불공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. 이의제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지 않고 그냥 이상 없음. 으로 답변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학습에 도움 될 것입니다.
-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답이 틀렸다면 고쳐야하는데 틀린 답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네요. 처음에 답안 공개 했을 때 답을 제대로 표시해주셨으면 합니다. 답이 잘못 된 게 많았습니다.
- 시험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힘들었습니다.

※강의

- 대다수 교수님들의 강의는 적절했으나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는 임상 의학을 처음 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입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가벼운 수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커리큘럼과 수업의 진행은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지만, 어떤 교수님의 경우는 너무 깊게 어떤 교수님의 경우는 너무 얇게 가르쳐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. 선배들도 '어떤 과목인지 모르겠다.'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 수도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정신없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, 이번 학년에서 사용할 강의록을 적절하게 전달받지 못해 불편함이 있었던 수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- 교수님별로 내용의 깊이가 너무 다르고 양도 너무 다르다. 각 교수님의 영역이라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.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알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. 교육 과정이라는 게 연계가 되어야하는데 이를 모르니 연결이 잘 안 되는 수업들이 되는 것 같다.
- 도대체 왜 만든 과목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. 2학년 때 자세히 배우라고 하는데 과목 폐지하고 2학년 때 배워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까먹고 많은 양을 시험 보려다 보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.
- 들어오시는 교수님 수를 줄이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- 한 번의 시험에 너무 많은 티수가 반영되어있어 학업의 부담이 너무나 큼니다.
- 강의록이 수업 전에 배포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.
- 많은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순서 기준(예: 소화기계, 신경계)이 있었으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
- 좋습니다.
- 너무 많은 과목이 있어서 집중할 수 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.
- 교수님별로 가르치시는 내용의 깊이나 방향을 통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- 교수님별로 너무 수업이 상이하십니다. 학생수준에서 이해할 내용만 하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아닌 교수님이 더 많으십니다
- 임상 의학 입문 각 임상과별로 접근방식이 다르고 내용의 깊이도 달라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.
- 임상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용어와 학생들이 배운 해부학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 점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- 다양한 과의 교수님이 너무 많이 짧은 시간에 들어오셔서 여러 과를 중구난방 배우다보니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.
- 같은 과에서 나오신 교수님들은 여러 교수님으로 나누지 말고 한 교수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령 진단학에서 소화기내과의 김인희 교수님과 복부 서승영 교수님이 계신데 이 두 분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많이 겹치는데 반해 시험 스타일은 달라서 두 분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습니다.
- 저는 이 과목에 교수님들이 많은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식을 너무 깊이 알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. 몇몇 교수님들이 강의를 모두 담당하게 되면 특정 내용들에 국한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, 그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지 않을 시 정말 힘듭니다.
- 교수님들께서 강의록을 제 시간에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상 강의록이 없으면 수업을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.!(효율적이지 않음)
- 조금 더 수업시수와 시험횟수를 쪼개어 실시한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.
-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님 수업 슬라이드 구성 및 내용이 너무 양이 많고 저희가 따라가기 어려웠으며, 실제로 시험문제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. 다른 교수님들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!
- 매 시간 교수님별 수업이 너무 다른 분야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. 비슷한 부분끼리 묶어서 수업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- 강의록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면 좋겠습니다.
- 양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시험을 바로 보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.
- 너무 알게 많은 내용을 배워서 개괄적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.
- 각 과 교수님들의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.
-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의 수를 줄였으면 좋겠음
- 입문이 아닌 거 같은 내용이 많았습니다.
입문에 맞게 모든 교수님이 입문 위주의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
- 너무 중구난방 식인 거 같습니다.

※기타

- 이름을 적는데 솔직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.

[2학년]

※시험

- 시험 보고 성적을 알려주세요.
- 시험 후 답지와 시험지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시험 후 피드백
- 성적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
※강의

- 따로 노는 느낌이고. 과목을 그냥 따로 만들어서 배우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.
- 임의입이 어떤 과목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를 매 학기나 쿼터마다 틀을 잡아주시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임의입이라는 과목명이 모호하고, 때마다 들어오시는 교수님들과 가르쳐주시는 내용들이 매우 상이해서 무슨 과목인지도 와 닿지가 않다는 친구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
- 교수님마다 강조하시는 바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서 시험 평가항목을 알려주고 공통적으로 수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- 임상실습을 위한 과목이라면 임상실습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의 통합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보다는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것만 강조해주셔도 효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
- 임상의학입문 과목 정체성을 모르겠음
- 교수님들의 수업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. 통합강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강의록만 읽어주고 넘어가는데 그 겹치는 시간은 빼고 통합강의를 차라리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 4 시간 에서 주 3시간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
- 통합강의 강의록 만들듯이 해주세요.
- 임상의학입문 수업 주제 순서가 임상수기교육 주제 순서와 매우 안 맞습니다. 그래서 배운 즉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.
- 더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
- 임상의학입문 과목의 필요성을 모르겠다.
- 임상의학입문도 블록으로 한 번에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
- 임상의학도 블록으로 몰아서 하면 좋겠습니다.
- 너무 자잘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
- 과목 구성이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.

[3학년]

※시험

- 시험 종료 후 문제의 정답과 피드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
- 빠른 피드백 및 채점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합니다.
- 수업 후 정답 및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.
- 시험 결과 공유와 피드백

※강의

- 임상의학입문은 자잘한 과목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. 임상의학입문을 없애고 통합강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.
- 임상의학입문에 독립적인 과목이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어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. 이를 대신하여, 작은 시수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를 교육과정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임상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내용과 실제 배운 내용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다.
- 임상의학입문 수업 내용이 여러 과의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던 것 같습니다.
- 그 시기에 배우는 통합강의 과목과 임상의학입문 배우는 과목이 일치하도록 편성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이때 배운 내용은 휘발성 입니다
- 구성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순서가 체계적으로 다시 잘 구성되면 좋겠습니다.

[4학년]

※시험

- 시험 종료 후 피드백 제공은 몇 과목 제외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자신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※강의

- 통합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과목들을 합쳐놓은 느낌이었습니다. 응급/외과/마이너 등으로 어느 정도 묶여있긴 했지만 수업 내용이 앞뒤가 달라서 따라가기 힘들기도 했습니다.
- 통합강의 순서와 비교해서 아직 통합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임상의학입문강의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순서를 맞춰주시면 공부하는데 더 효율이 좋을 거 같습니다.
- 임상의학입문 특별히 응급이라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일찍 배우는 거 보다 임상 과목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응급과목들
- 피드백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용이 혼잡해서 과별로 혹은 파트별로 분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.
-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- 초심자는 과목별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환자의사사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인지 아십니까? | 1명 (9.1%) | 8명 (72.7%) | - | 2명 (18.2%) |
| 2 | 환자의사사회1,2,3,4 과목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6명 (54.5%) | 4명 (36.4%) | 1명 (9.1%) |
| 3 | 각 환자의사사회(1,2,3,4 각각) 과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8명 (80.0%) | 1명 (10.0%) | 1명 (10.0%) |
| 4 | 환자의사사회 과목 내 교수별 배정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1명 (9.1%) | 9명 (81.8%) | 1명 (9.1%) |
| 5 |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? | 2명 (18.2%) | 6명 (54.5%) | 2명 (18.2%) | 1명 (9.1%) |
| 6 |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? | 1명 (9.1%) | 7명 (63.6%) | 2명 (18.2%) | 1명 (9.1%) |
| 7 |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1명 (9.1%) | 9명 (81.8%) | 1명 (9.1%) |
| 8 |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? | - | 6명 (54.5%) | 3명 (27.3%) | 2명 (18.2%) |
| 9 |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1명 (9.1%) | 6명 (54.5%) | 3명 (27.3%) | 1명 (9.1%) |
| 10 | 참여교수들은 학생강의평가 결과를 강의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1명 (9.1%) | 6명 (54.5%) | 3명 (27.3%) | 1명 (9.1%) |
| 11 | ※ 기타 환자의사사회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
| 전체 환자의사사회 과목의 편성과 진행순서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. | 1 | 45명 | 30.20% | 92명 | 61.74% | 9명 | 6.04% | 1명 | 0.67% |
| | 2 | 34명 | 24.11% | 94명 | 66.67% | 7명 | 4.96% | 3명 | 2.13% |
| | 3 | 30명 | 23.62% | 71명 | 55.90% | 18명 | 14.17% | 6명 | 4.72% |
| | 4 | 24명 | 21.24% | 69명 | 61.06% | 11명 | 9.73% | 4명 | 3.54% |
|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. | 1 | 48명 | 32.21% | 93명 | 62.42% | 4명 | 2.68% | 2명 | 1.34% |
| | 2 | 38명 | 26.95% | 88명 | 62.41% | 10명 | 7.09% | 2명 | 1.42% |
| | 3 | 29명 | 22.83% | 69명 | 54.33% | 23명 | 18.11% | 4명 | 3.15% |
| | 4 | 21명 | 18.58% | 72명 | 63.72% | 11명 | 9.73% | 4명 | 3.54% |
| 학습목표와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. | 1 | 49명 | 32.89% | 87명 | 58.39% | 9명 | 6.04% | 2명 | 1.34% |
| | 2 | 38명 | 26.95% | 88명 | 62.41% | 9명 | 6.38% | 3명 | 2.13% |
| | 3 | 33명 | 25.98% | 71명 | 55.90% | 15명 | 11.81% | 6명 | 4.72% |
| | 4 | 28명 | 24.78% | 65명 | 57.52% | 10명 | 8.85% | 5명 | 4.42% |
|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다. | 1 | 46명 | 30.87% | 84명 | 56.38% | 13명 | 8.72% | 4명 | 2.68% |
| | 2 | 34명 | 24.11% | 86명 | 60.99% | 15명 | 10.64% | 3명 | 2.13% |
| | 3 | 25명 | 19.69% | 76명 | 59.84% | 18명 | 14.17% | 6명 | 4.72% |
| | 4 | 23명 | 20.35% | 70명 | 61.95% | 10명 | 8.85% | 4명 | 3.54% |
|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. | 1 | 57명 | 38.26% | 85명 | 57.05% | 4명 | 2.68% | 1명 | 0.67% |
| | 2 | 44명 | 31.20% | 86명 | 60.99% | 6명 | 4.26% | 2명 | 1.42% |
| | 3 | 34명 | 26.77% | 68명 | 53.54% | 18명 | 14.17% | 5명 | 3.94% |
| | 4 | 28명 | 24.78% | 65명 | 57.52% | 12명 | 10.62% | 3명 | 2.65% |
| 시험 종료 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. | 1 | 63명 | 42.28% | 71명 | 47.65% | 6명 | 4.03% | 7명 | 4.70% |
| | 2 | 27명 | 19.15% | 59명 | 41.84% | 40명 | 28.37% | 12명 | 8.51% |
| | 3 | 31명 | 24.40% | 61명 | 48.03% | 22명 | 17.32% | 11명 | 8.66% |
| | 4 | 25명 | 22.12% | 55명 | 48.67% | 15명 | 13.27% | 13명 | 11.50% |

※ 기타 환자의사사회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.

[1학년]

※시험

- 교수님들의 수업이 열정적이어서 좋았다. 하지만 시험 후 성적, 답안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다.
- 통계학 개인적으로 독학중인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. 아무도 대충 공부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시험문제 서술형 위주로 계산과 머리를 직접 써야하는 문제들로 부탁드립니다.

※강의

- 권근상 교수님 수업처럼 다른 수업들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께서 관련된 앞뒤 내용을 함께 언급해주시고 반복학습 시켜주셨는데 그런 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
-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권근상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. 나름 한권의 정해진 책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체계적이긴 하다. 각 과목 수업 시간과 수업해야하는 내용의 양이 적절하게 분배되면 더 좋을 것 같다. 너무 빨리 진행되는 수업은 이해하기 힘들다.
- 1학기 pds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.
- 서울대처럼 이것을 고학년 때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국가고시 볼 때 까먹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.
- 강의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- 교과서보다 강의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강의록을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
- 책 내용이 강의록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.
- 너무나도 어려운 과목이라 양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.
- 권근상 교수님이 특히 잘 가르치십니다.
- 계속 국시 중심으로 수업해주세요 이해도 잘 되고 너무 좋고 든든해요
- 수업 중간 중간에 국가고시 문제들도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.

[2학년]

※시험

- 시험 종료 후에 문제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싶습니다. 정말 재밌는 수업이고 시험 문제도 너무 재밌는데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.
- 문제풀이

※강의

- 수업 시간이 딱 박혀있지 않고 블록으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.
- 환자의사사회 수업은 정말 재밌습니다. 교수님들도 수업을 너무 잘하십니다. 또한 수업내용도 매번 외우던 약 이름, 임상증상에서 좀 더 사회와 밀접한 내용을 공부하다보니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. 다만 제가 매우 그렇지 않다 를 선택한 이유는 수업시간입니다. 왜 항상 금요일에 2시간을 잡아뒀는지 모르겠습니다. 시험을 치고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, 심지어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. 다른 블록 강의들처럼 모아서 재밌게 수업 받고 싶습니다.
- 환자의사사회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의학도서관에서 다른 공부를 하고 피시방에 가는 것이 학교가 맞나 싶습니다.
- 서정우 교수님 수업 때 배우지 않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.
- 학생들 피드백 받기

- 피피티나 강조점 같은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줄글로 된 책을 읽게 되어 흥미와 내 용속지능률이 떨어집니다.
- 블럭으로 몰아서 하면 좋겠습니다.

[3학년]

※시험

- 문제의 정답과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빠른 피드백 및 채점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합니다.

※강의

- 의료 윤리와 예방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만족도가 높았던 과목이었습니다.

[4학년]

※시험

- 점수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고 나눠서 배우기보다 한 번에 배우면 좋겠다.

※강의

- 환자의사사회 시수가 본 1,2때 너무 많은 것 같고 다른 과목 시험 치는데 일주일에 1번씩 배우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블록강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

문제바탕학습(PBL)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 |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정보습득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5명 (12.2%) | 80명 (65.0%) | 23명 (18.7%) | 5명 (4.1%) |
| 2 | 모듈개발을 원하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모듈주제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1명 (8.9%) | 60명 (48.8%) | 46명 (37.4%) | 6명 (4.9%) |
| 3 | PBL 수업시간은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4명 (11.4%) | 59명 (48.0%) | 41명 (33.3%) | 9명 (7.3%) |
| 4 | PBL 모듈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7명 (5.7%) | 51명 (41.5%) | 52명 (42.3%) | 13명 (10.6%) |
| 5 | 조별 학생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8명 (6.5%) | 57명 (46.3%) | 44명 (35.8%) | 14명 (11.4%) |
| 6 | 조별 구성원 간 혹은 해당 튜터와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PBL 전용 홈페이지를 잘 사용하십니까? | 10명 (8.1%) | 28명 (22.8%) | 64명 (52.0%) | 21명 (17.1%) |
| 7 | PBL 평가방식은 적절하다고(PASS/FAIL) 생각하십니까? | 17명 (13.8%) | 74명 (60.2%) | 21명 (17.1%) | 11명 (8.9%) |
| 8 | 학생들은 P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? | 12명 (9.8%) | 71명 (57.7%) | 32명 (26.0%) | 8명 (6.5%) |
| 9 | 새로운 모듈이 시작될 때 실시하는 모듈 설명회가 PBL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| 38명 (30.9%) | 75명 (61.0%) | 6명 (4.9%) | 4명 (3.3%) |
| 10 | PBL 수업시간 2시간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신 시간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? (평균 47.8 분) | | | | |
| 11 | <p>※ 기타 문제바탕학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칩시다. ○ 모듈개발이 필요함 (소위원회 구성, 임상 - 기초 협동) ○ 주제의 다양화. 족보가 도는 것 같습니다. ○ PBL 모듈개발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각 교수님의 경험공유도 필요함 ○ 수업시간을 지켰지만 일찍 마친 다른 조들의 소음에 지장이 많았습니다. ○ PBL 전담 교육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○ 저학년(2)에서의 PBL은 컴퓨터를 통한 지식들로 학문적인 배경 없이 진행되어 가능하면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. ○ 표준화된 PBL 모듈을 마련하는데 타교와 교류하는 방법은 어떤지.. ○ PBL운영방식이 학생 간 교수 간 일치하도록 교육 필요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PBL은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정보습득이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. | 1 | 30명 | 20.13% | 80명 | 53.69% | 22명 | 14.77% | 16명 | 10.74% |
| | 2 | 15명 | 10.64% | 70명 | 49.65% | 40명 | 28.37% | 13명 | 9.22% |
| | 3 | 19명 | 14.96% | 59명 | 46.46% | 34명 | 26.77% | 13명 | 10.24% |
| | 4 | 21명 | 18.58% | 66명 | 58.40% | 15명 | 13.27% | 6명 | 5.30% |
| PBL 모듈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였다. | 1 | 23명 | 15.44% | 56명 | 37.58% | 42명 | 28.19% | 26명 | 17.45% |
| | 2 | 14명 | 9.93% | 72명 | 51.06% | 38명 | 26.95% | 14명 | 9.93% |
| | 3 | 13명 | 10.24% | 72명 | 56.69% | 30명 | 23.62% | 10명 | 7.87% |
| | 4 | 18명 | 15.93% | 69명 | 61.06% | 15명 | 13.27% | 6명 | 5.30% |
| PBL 모듈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었다. | 1 | 43명 | 28.86% | 89명 | 59.73% | 10명 | 6.71% | 6명 | 4.03% |
| | 2 | 28명 | 19.86% | 90명 | 63.83% | 13명 | 9.22% | 7명 | 4.96% |
| | 3 | 22명 | 17.32% | 71명 | 55.90% | 23명 | 18.11% | 9명 | 7.09% |
| | 4 | 23명 | 20.35% | 71명 | 62.83% | 11명 | 9.73% | 3명 | 2.65% |
| PBL 수업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였다.(현재 2시간배정) | 1 | 43명 | 28.86% | 80명 | 53.69% | 18명 | 12.08% | 7명 | 4.70% |
| | 2 | 28명 | 19.86% | 75명 | 53.19% | 22명 | 15.60% | 13명 | 9.22% |
| | 3 | 21명 | 16.54% | 67명 | 52.76% | 28명 | 22.05% | 9명 | 7.09% |
| | 4 | 23명 | 20.35% | 68명 | 60.18% | 9명 | 7.96% | 8명 | 7.08% |
| 조별 학생 수는 적절하였다. | 1 | 49명 | 32.89% | 85명 | 57.04% | 8명 | 5.37% | 6명 | 4.02% |
| | 2 | 34명 | 24.11% | 79명 | 56.03% | 15명 | 10.64% | 10명 | 7.09% |
| | 3 | 20명 | 15.75% | 71명 | 55.90% | 21명 | 16.54% | 13명 | 10.24% |
| | 4 | 23명 | 20.35% | 62명 | 54.87% | 16명 | 14.16% | 7명 | 6.19% |
| 조별 구성원간 혹은 해당 튜터와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PBL 전용 홈페이지를 잘 사용하였다. | 1 | 23명 | 15.44% | 81명 | 54.36% | 30명 | 20.13% | 13명 | 8.72% |
| | 2 | 18명 | 12.77% | 63명 | 44.68% | 39명 | 27.66% | 18명 | 12.77% |
| | 3 | 22명 | 17.32% | 64명 | 50.39% | 26명 | 20.47% | 13명 | 10.24% |
| | 4 | 21명 | 18.58% | 59명 | 52.21% | 21명 | 18.58% | 6명 | 5.30% |
| PBL 평가방식은 적절하다 (PASS/FAIL) | 1 | 89명 | 59.73% | 50명 | 33.56% | 6명 | 4.03% | 3명 | 2.01% |
| | 2 | 80명 | 56.74% | 44명 | 31.20% | 7명 | 4.96% | 7명 | 4.96% |
| | 3 | 43명 | 33.86% | 54명 | 42.52% | 19명 | 14.96% | 9명 | 7.09% |
| | 4 | 40명 | 35.40% | 56명 | 49.56% | 4명 | 3.54% | 8명 | 7.08% |
| 학생들은 P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. | 1 | 33명 | 22.15% | 79명 | 53.02% | 28명 | 18.79% | 8명 | 5.37% |
| | 2 | 28명 | 19.86% | 67명 | 47.52% | 28명 | 19.86% | 15명 | 10.64% |
| | 3 | 28명 | 22.05% | 66명 | 51.97% | 22명 | 17.32% | 9명 | 7.09% |
| | 4 | 27명 | 23.89% | 58명 | 51.33% | 15명 | 13.27% | 8명 | 7.08% |
| 튜터는 PBL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. | 1 | 53명 | 33.57% | 77명 | 51.68% | 10명 | 6.71% | 8명 | 5.37% |
| | 2 | 32명 | 22.70% | 74명 | 52.48% | 27명 | 19.15% | 5명 | 3.55% |
| | 3 | 27명 | 21.28% | 64명 | 50.39% | 23명 | 18.11% | 11명 | 8.66% |
| | 4 | 20명 | 17.70% | 67명 | 59.29% | 14명 | 12.39% | 7명 | 6.19% |

※ 기타 문제바탕학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

[1학년]

※강의

- 더 적은 시간이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말을 안 하는 학생은 정말 말을 하지 않고,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모듈도 있었습니다. 개선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.
- 1학년이다 보니 교수님께서 설명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
- 1학년 교육과 연계된 내용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.
- 78교시 까지 하고 pbl까지 있는 게 힘듭니다. 없어도 충분히 3학년 때 임상실습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.
- 3,4학년 때 실시해야 제대로 된 문제바탕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
- 가끔 1학년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듈이 있어 힘들었습니다. 학년을 고려해 모듈배정이 되었으면 더욱 본과에게 이렇게 뽀뽀한 시험일정이 존재하는 한 피비엘은 절대 온전히 원하던 학습목표로 이루어 지기 힘들 것입니다.
- 좀 더 조원 수가 적으면 좋겠습니다. 모듈은 학년에 맞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아예 접하지 못한 수준의 내용에서는 진행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.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모듈 선정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
- 모듈이 현재 본과 1학년 커리와 맞추어 그 시기쯤 배우는 질병이 나왔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
- 1학년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. 특히 영상자료 같은 경우 크기가 너무 작거나 화질이 선 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
- 저희 수준에 맞는 주제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.
- 좋은 선생님과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본 배경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어디서부터 과제를 짚 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학습수준에 맞는 주제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학생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. PBL 시작 전에 임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모듈의수준이 1학년에 잘 안 맞는다.

※기타

- 이 수업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.
- 교수님이 너무 많은걸 요구하시고 많은걸 기대하신다.
- PBL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일 듯합 니다.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
- pbl 하는 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.
- PBL 수업이 현실적으로 배움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
- P과목을 유지해야합니다
- 좀 더 적극적 참여 도출 필요
- PBL시간이 너무 늦게 잡혀있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참여율이 저조한 거 같 다.

[2학년]

※강의

- 시간 때우는 식 인거 같아요, 다른 학교는 피비엘만 따로 몰아서 하던데 그 방법도 괜찮을 거 같아요.
- PBL 수업을 듣기에 저희들의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. 이게 원래 의도한 방식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자꾸

수업 진도와 PBL 모듈의 환자가 엇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.

- 대대적 개편이 필요할 듯. 이미 배운 내용을 모듈로 주셨으면 합니다.
- 하려면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는 교수님도 학생들도 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여서 발언하기에도 눈치가 보임.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보다 더 재미있는 수업인데 너무 아쉬움.
- 튜터별 운영방식의 차이가 너무 큼. 어떤 pbl 모듈은 수업 시작 전에 해서 알기 힘들었음.
- 패스 페일이 아닌 점수화
- 문제가 정말 많지만, 통합강의에서 배운 내용만을 (수업 이후에 피비엘 진행) 다룬다면 좀 더 나올 거 같습니다.
- 학생들의 일부가 제시된 케이스에 대한 답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렇지 않도록 유도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.
- 통합강의 수업과 연계를 시키면 좋겠습니다. 신경학 수업을 안 들어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신경학 관련 모듈을 주니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.
-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모듈로 주는 게 어이가 없다.

※기타

- PBL에 상습적으로 결석하고, 조사도 해오지 않고 해설 강의는 다 빠집니다. 학점 제도로 바꿔야합니다.
- Pbl도 존재의의에 의문을 가진다.
- PBL은 그냥 안했으면 좋겠습니다. 동료 평가도 의미가 없고, 조별로 진행이 천차만별입니다.
- Pbl 시간이 너무 동떨어져있다
- 시험전날에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
- 실력 향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- Pbl을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Fail을 확실히 주세요.
- 별로 의미가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

[3학년]

※강의

- 문제바탕학습을 3-4학년 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.

[4학년]

※강의

- Pbl 조당 인원이 적어져야 참여도와 충실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.
- pbl 수업에서 대개 cpx 수준의 접근을 원하는데, cpx처럼 접근하도록 교육이 선행하면 그 후에 자율적인 케이스 접근이 가능할 것을 보임.
-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pbl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.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과 교수님과 한 환자를 두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은지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!
- 교수님 때문에 눈치 보느라 토론을 못함

심화선택의학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교수님이 수업하신 심화선택의학 과목들은 수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0명 (22.2%) | 28명 (62.2%) | 5명 (11.1%) | 2명 (4.4%) |
| 2 | 우리 대학의 심화선택의학 과목은 다양하게 설강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? | 7명 (15.6%) | 20명 (44.4%) | 14명 (31.1%) | 4명 (8.9%) |
| 3 | 과목별 수강 인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7명 (15.6%) | 23명 (51.1%) | 9명 (20.0%) | 6명 (13.3%) |
| 4 | 심화선택의학 평가방식은 적절하다고(PASS/FAIL) 생각하십니까? | 11명 (24.4%) | 20명 (44.4%) | 8명 (17.8%) | 6명 (13.3%) |
| 5 | 학생들은 심화선택의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? | 9명 (20.0%) | 16명 (35.6%) | 12명 (26.7%) | 8명 (17.8%) |
| 6 | 수업시간 2시간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신 시간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? (평균 83.8 분) | | | | |
| 7 | <p>※ 기타 심화선택의학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화선택 참여 교수에게 실습재료비를 최소한이라도 신청 및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○ 학생들이 수업태도가 무척 자유분방함, 관심 있어 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이 분명히 구분되어 관심 있는 소규모 그룹스터디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○ 심화선택에 항목의 평가 방식을 바꾸어야 학습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함 학생 수를 최소화(5인)할 수 있다면 현 평가 방식도 가능함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심화선택의학 과목들은 수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 | 1 | 36명 | 24.16% | 68명 | 45.64% | 26명 | 17.45% | 18명 | 12.08% |
| | 2 | 34명 | 24.11% | 84명 | 59.57% | 14명 | 9.93% | 6명 | 4.26% |
| | 3 | 21명 | 16.54% | 73명 | 57.48% | 21명 | 16.54% | 10명 | 7.87% |
| | 4 | 24명 | 21.2% | 68명 | 60.18% | 9명 | 7.96% | 7명 | 6.19% |
| 심화선택의학 과목은 다양하게 설강되어 선택의 폭이 넓었다. | 1 | 42명 | 28.19% | 55명 | 36.91% | 31명 | 20.80% | 20명 | 13.42% |
| | 2 | 32명 | 22.70% | 68명 | 48.23% | 24명 | 17.02% | 14명 | 9.93% |
| | 3 | 19명 | 14.96% | 71명 | 55.90% | 28명 | 22.05% | 7명 | 5.51% |
| | 4 | 27명 | 23.89% | 58명 | 51.33% | 18명 | 15.93% | 5명 | 4.42% |
| 심화선택의학 수업 시간은 적절하다. | 1 | 42명 | 28.19% | 74명 | 49.66% | 20명 | 13.42% | 12명 | 8.05% |
| | 2 | 42명 | 29.79% | 78명 | 55.32% | 13명 | 9.22% | 5명 | 3.55% |
| | 3 | 25명 | 19.69% | 75명 | 59.06% | 16명 | 12.60% | 9명 | 7.09% |
| | 4 | 26명 | 23.00% | 68명 | 60.18% | 9명 | 7.96% | 5명 | 4.42% |
| 심화선택의학 과목별로 그 특성에 맞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| 1 | 44명 | 29.53% | 68명 | 45.64% | 22명 | 14.76% | 14명 | 9.40% |
| | 2 | 38명 | 26.95% | 87명 | 61.70% | 9명 | 6.38% | 3명 | 2.13% |
| | 3 | 22명 | 17.32% | 75명 | 59.06% | 20명 | 15.75% | 8명 | 6.30% |
| | 4 | 27명 | 23.89% | 69명 | 61.06% | 9명 | 7.96% | 3명 | 2.65% |
| 과목별 수강 인원은 적절하다. | 1 | 44명 | 29.53% | 73명 | 48.99% | 21명 | 14.09% | 10명 | 6.71% |
| | 2 | 40명 | 28.37% | 78명 | 55.32% | 15명 | 10.64% | 5명 | 3.55% |
| | 3 | 24명 | 18.90% | 75명 | 59.06% | 17명 | 13.39% | 9명 | 7.09% |
| | 4 | 31명 | 27.43% | 61명 | 53.98% | 12명 | 10.62% | 4명 | 3.54% |
| 과목별 수업내용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. | 1 | 48명 | 32.21% | 70명 | 46.98% | 22명 | 14.77% | 8명 | 5.37% |
| | 2 | 38명 | 26.95% | 78명 | 55.32% | 17명 | 12.06% | 5명 | 3.55% |
| | 3 | 24명 | 18.90% | 73명 | 57.48% | 18명 | 14.17% | 10명 | 7.87% |
| | 4 | 32명 | 28.32% | 63명 | 55.75% | 10명 | 8.85% | 3명 | 2.65% |
| 심화선택의학 평가방식은 적절하다.(PASS/FAIL) | 1 | 84명 | 56.38% | 55명 | 36.91% | 6명 | 4.03% | 3명 | 2.01% |
| | 2 | 75명 | 53.19% | 56명 | 39.72% | 4명 | 2.84% | 3명 | 2.13% |
| | 3 | 35명 | 27.56% | 67명 | 52.76% | 14명 | 11.02% | 9명 | 7.09% |
| | 4 | 42명 | 37.17% | 57명 | 50.44% | 3명 | 2.65% | 6명 | 5.30% |

※ 기타 심화선택의학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

[1학년]

※강의

- 패스 파일이다 보니 제대로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많은 수업들 사이에서 또 수강하는 수업이다 보니 별로인 것 같습니다.. 차라리 참여하는 수업이나 실험 수업이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.
-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좁습니다.
- 좀 더 쉽고 흥미가 가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.
- 다양하고 인원이 많았으면 합니다.
- 매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.

※기타

- 수업을 열심히 들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
- 심화선택의학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. 학생들의 참여나 집중을 위해서는 소규모 강의를 여러 개 개설하여 임상실습이전에 약간의 맛보기형식의 실습이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 등의 실습위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
- 이 수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. 물론 예과대상으로는 좋은 수업이지만 시험일정이 이렇게 가득 찬 본 과에게 절대 목적을 하등 달성할 수 없습니다.
-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설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.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강의들을 수강했는데 솔직하게 이걸 무얼 얻기 위해 듣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
-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(간단하게라도)
- 수업시간이 너무 길고 시험이 많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심화선택수업 시간 참여율이 낮은 거 같다.
- 제발 심화선택의학과목에 지원 좀 해주세요. 배울게 정말 많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일 크게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입니다.

[2학년]

※강의

- 더 많은 과목이 소규모로 있었으면 좋겠어요.
- 심화선택의학교육은 3가지 분야를 특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 어차피 선택이라면 그런 벽조차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 굳이 의학 사회 자유를 나누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, 듣고 싶은 분야가 있어도 학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과목을 억지로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
- 김선준 교수님의 심화선택 수업은 정말 앞으로 임상에 도움이 될 만한 "심화" 수업 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
- 다양성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2학년 심화선택의학은 너무 선택 폭이 좁았습니다.
- 과목 선택의 폭이 좁고 인원수와 시간적 제한이 있다
- 소강의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.
- 외부강사 초빙

※기타

- 소강의를 단순히 강의 내용에 대한 흥미보다는 공강을 노리고 수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해당 강의를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

[3학년]

※강의

○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임상수기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임상수기 습득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| 26명 (37.7%) | 41명 (59.4%) | 1명 (1.4%) | 1명 (1.4%) |
| 2 | 기본임상술기지침서에 따라 지도하고 계십니까? | 19명 (27.5%) | 47명 (68.1%) | 2명 (2.9%) | 1명 (1.4%) |
| 3 | 임상술기센터는 임상수기 교육 환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8명 (26.1%) | 40명 (58.0%) | 10명 (14.5%) | 1명 (1.4%) |
| 4 | 학생들은 임상수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? | 23명 (33.3%) | 41명 (59.4%) | 4명 (5.8%) | 1명 (1.4%) |
| 5 | <p>※ 기타 임상수기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습이나 사전에 학생들이 수기를 해보고 직접 못하는 부분은 지적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○ 실습모형에 다양한 임상상황에 맞게 개발이 필요하고 모형의 유지보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. ○ 시수 대비 교수 수가 부족. 교육 인력 확충이 필요 ○ 전담인력배정 고려해주시시오 ○ 임상수기 교육에 가장 큰 단점은 모델을 이용한 술기에 경험을 갖게 되어 전반적으로 거친 형태를 보이는 편임 -> 향후 임상에서 동류 숙기 접근 시 이런 문제점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며 전공의 교육 시 더 많은 지적과 감시 하에 술기 습관에 변화가 있어서 염려가 큰 편 ○ 임상수기 참여 교수의 노력에 비해 성과보상이 적습니다. 병원 내 전임의 진료교수 임상교수도 적절한 시스템 도입으로 임상수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십시오.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임상수기 습득에 적절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. | 2 | 48명 | 34.04% | 86명 | 60.99% | 3명 | 2.13% | 1명 | 0.70% |
| | 3 | 22명 | 17.32% | 82명 | 64.57% | 18명 | 14.17% | 3명 | 2.36% |
| | 4 | 32명 | 28.32% | 64명 | 56.64% | 8명 | 7.08% | 4명 | 3.54% |
| 학생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. | 2 | 54명 | 38.30% | 78명 | 55.32% | 5명 | 3.55% | 1명 | 0.70% |
| | 3 | 26명 | 20.47% | 80명 | 62.99% | 15명 | 11.81% | 4명 | 3.15% |
| | 4 | 33명 | 29.20% | 63명 | 55.75% | 8명 | 7.08% | 4명 | 3.54% |
| 수기 습득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. | 2 | 49명 | 34.75% | 83명 | 58.87% | 2명 | 1.42% | 3명 | 2.13% |
| | 3 | 27명 | 21.26% | 76명 | 59.84% | 18명 | 14.17% | 4명 | 3.15% |
| | 4 | 33명 | 29.20% | 64명 | 56.64% | 8명 | 7.08% | 3명 | 2.65% |
| 교수는 기본 임상술기 지침서에 따라 지도해주었다. | 2 | 49명 | 34.75% | 81명 | 57.45% | 7명 | 4.96% | 1명 | 0.70% |
| | 3 | 29명 | 22.83% | 78명 | 61.42% | 15명 | 11.81% | 3명 | 2.36% |
| | 4 | 31명 | 27.43% | 59명 | 52.21% | 10명 | 8.85% | 8명 | 7.08% |
| 교수는 학생들의 수기실습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. | 2 | 61명 | 43.26% | 68명 | 48.23% | 7명 | 4.96% | 1명 | 0.70% |
| | 3 | 31명 | 24.40% | 75명 | 59.06% | 14명 | 11.02% | 5명 | 3.94% |
| | 4 | 37명 | 32.74% | 55명 | 48.67% | 8명 | 7.08% | 8명 | 7.08% |
| 수기에 대한 설명과 실습간의 시간이 적절히 배분되었다. | 2 | 49명 | 34.75% | 80명 | 56.74% | 5명 | 3.55% | 2명 | 1.42% |
| | 3 | 26명 | 20.47% | 79명 | 62.20% | 16명 | 12.60% | 4명 | 3.15% |
| | 4 | 36명 | 31.86% | 59명 | 52.21% | 9명 | 7.96% | 4명 | 3.54% |
| 임상술기센터는 임상수기 교육 환경에 적절하다. | 2 | 48명 | 34.04% | 72명 | 51.06% | 13명 | 9.22% | 4명 | 0.70% |
| | 3 | 25명 | 19.69% | 75명 | 59.06% | 16명 | 12.60% | 9명 | 7.09% |
| | 4 | 41명 | 36.28% | 50명 | 44.25% | 12명 | 10.62% | 5명 | 4.42% |
| 성적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. | 2 | 42명 | 29.79% | 69명 | 48.94% | 21명 | 14.89% | 5명 | 3.55% |
| | 3 | 28명 | 22.05% | 67명 | 52.76% | 22명 | 17.32% | 7명 | 5.51% |
| | 4 | 28명 | 24.78% | 59명 | 52.21% | 15명 | 13.27% | 6명 | 5.30% |

※ 기타 임상수기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.

[2학년]

※시험

- 시험 중 항목 간 평가시간 부족
- 성적반영에 있어 A반 B반이 동시에 평가될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.
- 시험점수가 나오고 무엇에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알려주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험 볼 때 저는 분명 끝까지 다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확인하러 갔더니 평가항목을 알려주지도 않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.

※강의

- 영상 틀어주거나 직접 시연해주시는 것 딱 한 번 해주시고 나서, 학생한테 바로 시키지 말고, 과정 하나 하나 바로 꼼꼼히 따라하게 시키면서 잘 따라오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별로 알려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학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.
- 연습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예고 없이 수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고, 사용하는 기구가 오래되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. 의료면담이나 나쁜 소식 전하기 등의 수업은 직접 모의환자를 보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
- 성적평가 공정성 (앞 반, 뒤 반), 전문 환자배우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, 교육영상이 너무 오래됨, 가르치는 교수가 레지던트나 타 교수에게 부탁할 경우 튜토리얼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다름
- 연습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.
- 정확한 평가 기준, 강의자료 배부
- 수업시간 외에 평소에(특히 시험 전)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- 국가고시에서 오스키 cpx 통합되는데 이를 반영해서 수업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

※기타

- 성적 항상 씨플 받지만 수업은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. 이런 수업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.
- 실습 자재가 부족합니다. 대량 편입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보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- 본4시험을 위해 본2시험을 취소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합니다.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3학년 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서남대 들어왔으면 그만큼 기계와 자재를 확충해야 하지 않나요? 의자도 고장난거 많고 도구가 부족해서 기다려야 해요.
- 재료가 풍부했으면
- 자재가 더 충분했으면 좋겠다.
- 본2때 할 이유가 없다

[3학년]

※시험

- 채점결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.

※기타

- 학생들이 임상수기 관련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-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학년 때 배울 때와 시험 직전만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
- 사람대비 너무 실습도구 부족
- 직원선생님들 퇴근시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습니다. 퇴근시간 이후에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[4학년]

※강의

- 실제 국시 세팅이나 방식, 채점방식을 반영하는 것이 4학년 때 실기 준비 시 혼란이 덜하고, 교수님마다 방법이 달라서, 일괄성이 필요하다.
- 교수님들 간의 수업내용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피드백을 개인별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실기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코멘트 해주시는 등으로 다음 시험 때 붙을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교수님마다 수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음

※기타

-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였다.
- 임상술기센터에 비치된 실습자재들이 낙후되어 이로 인해 실습 및 성적평가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.

증례바탕학습(CBL)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| CBL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| 3명 (6.7%) | 41명 (91.1%) | 1명 (2.2%) | - |
| 2 | CBL 수업 주제들은 다양한 증상을 통해 질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| 5명 (11.1%) | 38명 (84.4%) | 2명 (4.4%) | - |
| 3 | CBL 수업 내용이 임상증상중심 학습목표달성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3명 (6.7%) | 40명 (88.9%) | 2명 (4.4%) | - |
| 4 | 증례 선정이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29명 (64.4%) | 13명 (28.9%) | 3명 (6.7%) |
| 5 | 학생들은 CBL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? | 4명 (8.9%) | 37명 (82.2%) | 4명 (8.9%) | - |
| 6 | 시험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십니까? | 5명 (11.1%) | 33명 (73.3%) | 6명 (13.3%) | 1명 (2.2%) |
| 7 | 매년 같은 내용을 출제하더라도 문항형식을 바꾸어 출제하십니까? | 3명 (6.7%) | 37명 (82.2%) | 4명 (8.9%) | 1명 (2.2%) |
| 8 | 시험 문항 수는 강의 시간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| - | 14명 (31.1%) | 26명 (57.8%) | 5명 (11.1%) |
| 9 | 시험 후 문제풀이를 하였거나 정답을 제공하였습니까? | - | 9명 (20.0%) | 30명 (66.7%) | 6명 (13.3%) |
| 10 | 참여교수들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까? | - | 9명 (20.0%) | 29명 (64.4%) | 7명 (15.6%) |
| 11 | 수업시간 2시간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신 시간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? (평균 58.7 분) | | | | |
| 12 | <p>※ 기타 CBL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표학생들만 준비하고 관심이 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관객임 ○ 외래에서 문진 기회의 제공은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행이 되어야 하고 환자에게 진료 상 불편을 주지 않아야하기에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. (학생들이 사전 준비되지 않았고,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불만이 커짐) ○ CBL이 금요일 시행되어 학생 임상실습시간에 영향을 줍니다. 실제 CBL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임상실습시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CBL 오리엔테이션은 CBL수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| 3 | 23명 | 18.11% | 77명 | 60.63% | 17명 | 13.39% | 8명 | 6.30% |
| | 4 | 31명 | 27.43% | 59명 | 52.21% | 13명 | 11.50% | 5명 | 4.42% |
| CBL 수업 주제들은 다양한 증상을 통해 질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| 3 | 27명 | 21.26% | 74명 | 58.27% | 16명 | 12.60% | 8명 | 6.30% |
| | 4 | 29명 | 25.67% | 63명 | 55.75% | 12명 | 10.62% | 4명 | 3.54% |
| CBL 수업 내용이 임상증상중심 학습목표달성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다. | 3 | 23명 | 18.11% | 75명 | 59.06% | 20명 | 15.75% | 7명 | 5.51% |
| | 4 | 31명 | 27.43% | 60명 | 53.10% | 10명 | 8.85% | 7명 | 6.19% |
| CBL 수업시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였다.(현재 2시간 배정) | 3 | 21명 | 16.54% | 77명 | 60.63% | 20명 | 15.75% | 7명 | 5.51% |
| | 4 | 31명 | 27.43% | 61명 | 53.98% | 10명 | 8.85% | 6명 | 5.30% |
| 시험은 수업내용에 배운 내용을 반영하였다. | 3 | 23명 | 18.11% | 79명 | 62.20% | 17명 | 13.39% | 6명 | 4.72% |
| | 4 | 27명 | 23.89% | 59명 | 52.21% | 15명 | 13.27% | 7명 | 6.19% |

※ 기타 증례바탕학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오.

[3학년]

※강의

-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같이 보면서 피드백 하는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교수님들께서 실제 진료를 하시며 진단을 내리시는 과정도 참고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[4학년]

※강의

- 실습 때 발표 수업 하는 것을 하나 더 하는 느낌도 있는데 cpx에서 어떻게 감별진단 하고 진단을 내리는 지를 초점으로 수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임상실습 교육과정평가 결과

1. 교수

| | 내용 | 매우 그렇다 | 그렇다 | 그렇지 않다 | 매우 그렇지 않다 |
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임상실습 지침서에 따라 임상실습을 운영하였습니까? | 12명 (14.1%) | 66명 (77.6%) | 6명 (7.1%) | - |
| 2 | 임상실습지침서는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? | 15명 (17.9%) | 61명 (72.6%) | 8명 (9.5%) | - |
| 3 | 임상실습의 필수적 학습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실습계획을 세웠습니까? | 19명 (22.6%) | 57명 (67.9%) | 8명 (9.5%) | - |
| 4 | 임상실습이 일차 진료의로서의 지식과 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까? | 17명 (20.2%) | 55명 (65.5%) | 11명 (13.1%) | 1명 (1.2%) |
| 5 | 임상실습은 실제 계획된 스케줄대로 진행하였습니까? | 19명 (22.6%) | 60명 (71.4%) | 5명 (6.0%) | - |
| 6 | 각 과(분과)에 배정된 임상술기 항목(osce, cpx) 교육은 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까? | 15명 (17.9%) | 51명 (60.7%) | 18명 (21.4%) | - |
| 7 | 외래 환자에게 직접 병력청취 및 신체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? | 12명 (15.0%) | 36명 (45.0%) | 28명 (35.0%) | 4명 (5.0%) |
| 8 |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습이 진행되었습니까? | 23명 (27.4%) | 54명 (64.3%) | 7명 (8.3%) | - |
| 9 |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평가방법은 사전에 공지하였습니까? | 20명 (23.8%) | 52명 (61.9%) | 11명 (13.1%) | 1명 (1.2%) |
| 10 | 학생들의 임상실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해주셨습니까? | 15명 (17.9%) | 42명 (50.0%) | 25명 (29.8%) | 2명 (2.4%) |
| 11 | 각 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였습니까? | 16명 (19.0%) | 40명 (47.6%) | 25명 (29.8%) | 3명 (3.6%) |
| 12 | <p>※ 기타 임상실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들의 진료나 참관이 병원에서 이루어질 때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료 예약 시 학생들의 참관이나 실습이 있음을 공지해주시고 학생들의 예진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합니다. ○ 전담인력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내과의 경우 회진이외에 대부분 임상교수 기금교수 이외에 참여하는 분과가 많지 않습니다. ○ 환자들의 거부로 임상실습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○ 학생들이 환자 차트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실습환경(컴퓨터 등) 조성이 필요합니다. | | | | |

2. 학생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 명수 | 비율 |
| 임상실습 지침서에 따라 임상실습이 이루어졌다. | 3 | 32명 | 25.20% | 65명 | 51.18% | 22명 | 17.32% | 6명 | 4.72% |
| | 4 | 26명 | 23.00% | 70명 | 61.95% | 8명 | 7.08% | 4명 | 3.54% |
|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었다. | 3 | 34명 | 26.77% | 72명 | 56.69% | 11명 | 8.66% | 8명 | 6.30% |
| | 4 | 35명 | 30.97% | 61명 | 53.98% | 10명 | 8.85% | 2명 | 1.77% |
| 각 과(분과)에서 배정된 임상술기항목(osce,cpx) 교육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. | 3 | 28명 | 22.05% | 64명 | 50.39% | 23명 | 18.11% | 10명 | 7.87% |
| | 4 | 34명 | 30.09% | 55명 | 48.67% | 16명 | 14.16% | 3명 | 2.65% |
| 학습을 위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. | 3 | 41명 | 32.28% | 64명 | 50.39% | 12명 | 9.45% | 8명 | 6.30% |
| | 4 | 40명 | 35.40% | 58명 | 51.33% | 8명 | 7.08% | 2명 | 1.77% |
|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습이 진행되었다. | 3 | 34명 | 26.77% | 70명 | 55.12% | 15명 | 11.81% | 6명 | 4.72% |
| | 4 | 34명 | 30.09% | 62명 | 54.87% | 7명 | 6.19% | 5명 | 4.42% |
| 임상실습 평가방법은 사전에 공지되었다. | 3 | 29명 | 22.83% | 71명 | 55.90% | 17명 | 13.39% | 8명 | 6.30% |
| | 4 | 29명 | 25.66% | 60명 | 53.10% | 14명 | 12.39% | 5명 | 4.42% |
| 학생들의 임상실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. | 3 | 30명 | 23.62% | 72명 | 56.69% | 16명 | 12.60% | 7명 | 5.51% |
| | 4 | 29명 | 25.66% | 62명 | 54.87% | 11명 | 9.73% | 5명 | 4.42% |
| 각 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려 노력하였다. | 3 | 25명 | 19.69% | 75명 | 59.06% | 13명 | 10.24% | 12명 | 9.45% |
| | 4 | 30명 | 26.55% | 60명 | 53.10% | 11명 | 9.73% | 6명 | 7.96% |

※ 임상실습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(분과)를 2개 쓰시오.

| 3학년 | 4학년 |
|---|--|
| 이비인후과(13), 소화기내과(12), 혈액종양내과(9), 신경과(6), 피부과(6), 성형외과(5), 산부인과(4), 상부위장관외과(4), 소아과(4), 심장내과(4), 호흡기내과(4), 비뇨의학과(3), 안과(3), 내과(2), 정신과(2), 지역사회의학(2), 간담체외과(1), 류마티스내과(1), 유방갑상선외과(1), 정형외과(1) | 소화기내과(12), 마취통증의학과(9), 내분비내과(7), 이비인후과(7), 영상의학과(4), 유방갑상선외과(4), 신장내과(3), 재활의학과(3), 내과(2), 산부인과(2), 소아과(2), 심장내과(2), 정신과(2), 감염내과(1), 소아청소년과(1), 외과(1), 혈액종양내과(1), 흉부외과(1) |

※ 기타 임상실습 교육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.

[3학년]

※시험

- 빠른 피드백 및 채점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합니다.

※강의

- 임상실습지침서 내용만 읽어도 실제 실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,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- 수술 방에서 수술하는 장면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 의미 없이 서 있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복강경 수술 같은 것은 앉아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안 보이는 수술들은 교육용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※기타

- 출석 체크 좀 확실히 해주세요. 일부 학생이 잠수타거나 중간에 땡땡이칩니다.
- 출입카드 1인당 1개씩 나눠주세요. 조당 조금씩밖에 안주니까 시설 출입과 문진에 제한이 너무 많아 실습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.

부 록

[부록 1] 교 수 : 교육과정원칙 동의 정도

[부록 2] 학 생 :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

[부록 1] 교육과정원칙 동의 정도(교수)

| | 교육과정 원칙 | 매우 동의함 | 동의 | 동의 하지 않음 | 매우 동의하지 않음 |
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성과바탕교육과정을 운영한다. | 50명 (38.8%) | 75명 (58.1%) | 3명 (2.3%) | 1명 (0.8%) |
| 2 | 기본진료의사 양성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. | 60명 (46.5%) | 65명 (50.4%) | 3명 (2.3%) | 1명 (0.8%) |
| 3 |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평-수직통합이 되도록 구성한다. | 56명 (43.8%) | 64명 (50.0%) | 8명 (6.3%) | - |
| 4 |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한다. | 53명 (41.1%) | 62명 (48.1%) | 14명 (10.9%) | - |
| 5 | 지역사회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하고,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. | 44명 (34.1%) | 69명 (53.5%) | 16명 (12.4%) | - |
| 6 |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. | 42명 (32.8%) | 74명 (57.8%) | 10명 (7.8%) | 2명 (1.6%) |
| 7 |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강화한다. | 49명 (38.0%) | 72명 (55.8%) | 8명 (6.2%) | - |
| 8 |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을 강화한다. | 44명 (34.1%) | 67명 (51.9%) | 17명 (13.2%) | 1명 (0.8%) |
| 9 | 의료면담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한다. | 47명 (36.4%) | 65명 (50.4%) | 17명 (13.2%) | - |
| 10 | 의학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. | 41명 (31.8%) | 70명 (54.3%) | 18명 (14.0%) | - |

[부록 2] 교육과정별 만족 정도(학생)

| | 학년 | 매우만족 | | 만족 | | 불만족 | | 매우불만족 |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 명 | % |
| 통합교육과정 | 1 | 33명 | 22.15% | 90명 | 60.40% | 23명 | 15.44% | 3명 | 2.01% |
| | 2 | 34명 | 24.11% | 89명 | 63.12% | 15명 | 10.64% | 2명 | 1.42% |
| | 3 | 26명 | 20.47% | 73명 | 57.48% | 17명 | 13.39% | 11명 | 8.66% |
| | 4 | 20명 | 17.70% | 67명 | 59.29% | 19명 | 16.81% | 6명 | 5.30% |
| 임상의학입문 교육과정 | 1 | 40명 | 26.85% | 65명 | 43.62% | 39명 | 26.17% | 5명 | 3.36% |
| | 2 | 26명 | 18.44% | 66명 | 46.80% | 39명 | 27.66% | 8명 | 5.67% |
| | 3 | 21명 | 16.54% | 64명 | 50.39% | 29명 | 22.83% | 13명 | 10.24% |
| | 4 | 22명 | 19.47% | 65명 | 57.52% | 20명 | 17.70% | 5명 | 4.42% |
|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 | 1 | 46명 | 30.87% | 83명 | 55.70% | 17명 | 11.41% | 3명 | 2.01% |
| | 2 | 39명 | 27.66% | 78명 | 55.32% | 17명 | 12.06% | 5명 | 3.55% |
| | 3 | 28명 | 22.05% | 69명 | 54.33% | 21명 | 16.54% | 9명 | 7.08% |
| | 4 | 22명 | 19.47% | 62명 | 54.87% | 17명 | 15.04% | 11명 | 9.73% |
| 심화선택의학 교육과정 | 1 | 30명 | 20.13% | 54명 | 36.24% | 44명 | 29.53% | 21명 | 14.09% |
| | 2 | 26명 | 18.44% | 75명 | 53.19% | 26명 | 18.44% | 12명 | 8.51% |
| | 3 | 25명 | 19.69% | 64명 | 50.39% | 23명 | 18.11% | 14명 | 11.02% |
| | 4 | 27명 | 23.89% | 59명 | 52.21% | 20명 | 17.70% | 6명 | 5.31% |
| 문제바탕학습 교육과정 | 1 | 23명 | 15.44% | 70명 | 46.98% | 42명 | 28.19% | 14명 | 9.39% |
| | 2 | 14명 | 9.93% | 45명 | 31.91% | 53명 | 37.59% | 27명 | 19.15% |
| | 3 | 22명 | 17.32% | 54명 | 42.52% | 36명 | 28.35% | 15명 | 11.81% |
| | 4 | 20명 | 17.70% | 55명 | 48.67% | 24명 | 21.24% | 12명 | 10.62% |
| 임상수기 교육과정 | 2 | 38명 | 26.95% | 79명 | 56.03% | 18명 | 12.77% | 4명 | 2.84% |
| | 3 | 33명 | 25.98% | 69명 | 54.33% | 15명 | 11.81% | 10명 | 7.87% |
| | 4 | 31명 | 27.43% | 63명 | 55.75% | 10명 | 8.85% | 7명 | 6.19% |
| 증례바탕학습 교육과정 | 3 | 16명 | 12.60% | 70명 | 55.12% | 23명 | 18.11% | 18명 | 14.17% |
| | 4 | 22명 | 19.47% | 65명 | 57.52% | 17명 | 15.04% | 7명 | 6.19% |
| 임상실습 교육과정 | 3 | 32명 | 25.20% | 69명 | 54.33% | 16명 | 12.60% | 10명 | 7.87% |
| | 4 | 29명 | 25.66% | 67명 | 59.29% | 9명 | 7.96% | 6명 | 5.31% |

2019년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
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

인쇄일 2019 월 일

발행일 2019 월 일

발행처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실

발행인 의과대학장 정상근, 교육부학장 김인희

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2-20번지
전화 (063) 270-3055
